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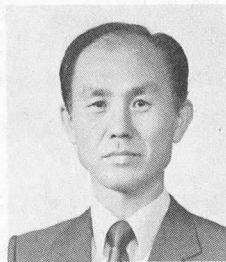
국민의 소리가 온다!

16개국 참전과 160개국 참가 -40년만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도
걸으려는 평화와 화합을 외쳐도
분명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40년전 6·25때 16개국이 참전하여 폐허가 된 이 땅에 뼈를 묻고 갔다. 다시 40년후 그곳 서울에서 160개국이 참가하여(참전) 금과 은과 구리를 캐내고 있다. 40년전 총부리를 겨누던 나라들끼리 손에 손잡고 이념의 벽을 넘어서 화해를 외치고 있다.

그때의 주역들이 아직도 주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때와는 다르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의 LA에서 4년만에 아세아의 서울로 옮겨 온 느낌이다. 벌써 4년만에 태평양 시대가 끝나고 아세아 시대로 접어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한국·중공·일본·대만·홍콩이 중심이 된 아세아 시대가 얼마나 지속되다가 인도 등 동남아 시대로 갈 지는 알 수 없으나, 동에서 서쪽으로 세계의 중심지가 옮겨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순리인 것 같다.

그렇다고 미국이 몰락해서 태평양 시대가 끝난 것도 아니고 다만 미국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이며, 약화되었다고는 해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세아·태평양 시대로 언론들도 표현하고 있다.

스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이라는 명작을 1차대전 전에 구상하여 대전중에 집필하고 대전후 출판하였으니 그의 앞날을 내다보는 눈에 감탄할 뿐이다. 세계를 주름잡던 서구의 몰락을 감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이었으니 말이다.

66 과거에는 개인이 우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민족이 또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얼마나 단결해서 총체적인 힘으로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 올림픽후 양돈인의 저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다. 99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가 세계의 주역이 된다는 데에는 기분이 나쁠 것이야 없지만 최근 가치관의 변화로 당황할 때가 많다.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모두가 친구인지 모두가 적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쳐도 살아 남으려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림픽에 모인 160개국 모든 사람들이 밝고 착해 보여도 라인홀드·니어버 교수가 그의 저서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와 국가로 대할 때에는 잡아먹느냐, 먹히느냐의 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 영화 람보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올림픽후의 우리 축산업계 특히 양돈업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헝가리와 상주대표부가 설립되고 그외 동구권과 무역대표부 정도는 설립될 것 같은데, 이들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농축산물 정도가 아닌지도 궁금하다.

중공·소련과도 무역대표부가 설립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도 변하고 영향력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서둘러 축산물 개방·압력을 가해 오지나 않을까?

내년 3월 9일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는 미국제 무역위원회(ITC)가 착수한 한국과의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주로 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질때 공산품 수출이야 늘어나겠지만, 농축산물은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화려한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후를 생각하는 축산인은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찰스다윈의 진화론이 자본주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생존경쟁, 적자생존 원리를 적용해서 우수한 기업이, 우수한 산업이, 우수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진화론의 원리대로라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든가, 실업수당을 준다든가,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교우위를 내세워 힘없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전쟁을 해도 장수끼리만 싸워서 결판을 내거나 아니면 적당히 싸우고 마는데, 이제는 원자탄을 사용해서 싸움을 하니 옛날과는 다르다. 그저 적당히 쓰러지고 적당량이 살아 남는 것이 아니다. 목화농사가, 밀농사가, 유채농사가 무대에서 살아져 가는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수입이 개방되어도 세상이 변해도 나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수이다.

이제는 총력전이다. 과거에는 개인이 우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민족이 또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얼마나 단결해서 총체적인 힘으로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개인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말하지만 단결 잘 하는 일본이 더 잘 사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올림픽 이후 양돈인의 저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올 것이며, 이 때를 위해 자조금제도와 같은 농장의 발전이 아닌 산업의 발전에 활력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